

다시 푸는 경서

치문경훈 (17)

雲法師 務學十門(운법사 무학십문) ③

③ 不擇師 無以法 불택사 무이법 鳥之將息 必擇其林 人之求學 當選於師...

내위제발 지수구계 자기유학 投師隨教 見以高之 異哉 小童 眞世良驥...

③ 스승을 가리지 않으면 법 받을게 없다

새는 쉬러함에 반드시 숲을 택하고 사람이 도를 배움(망념을 함)에는 마땅히 스승을 가릴 것이니 스승은 사람의 모범이어늘 분이 본답지 못하고 보기가 보기답지 못하게 예나 이제나 많다.

번의경을 주니 경전을 들고 밤에 나가 쉬는 꿈에 흠어보고 저녁에 스승께 돌아와 경을 외어 마치매 스승이 크게 놀라 머리 깎아주고 구족계를 주며 네 마음대로 유학하라 하였다.

次乃解經問義 行亦藏瑕 차내해수통효 행역장하 如罪非人 持經問道 斯二高座 皆德師法...

故 出家者 慎宜詳擇 察有丘成之能 方 고 출가자 신의상택 찰유장성지능 방...

“출가한 이는 네 마구니 고통 두려워하고 오욕집착 끊어야 사생 제도 해탈경지”

望風依附 畢世荒唐 망풍의부 필세광당 東晉安師 十二出家 親親深源 동진안사 십이출가 모후형두...

厭三界之無常 辭六親之至愛 捨五慾之 厭삼계지무상 사육친지지에 사오욕지...

다음은, 아는 것은 비록 특벽어 밝으나 행함에는 허물을 숨기는 것이 마치 죄를 범한 이가 등불로 길을 비추는 것 같으니 이 두가지 높은 자리는 다 스승법을 쌓은 경우이다.

고로 출가자는 신중하게 의망 상생해 가려서 재목감이 되는지를 살피고야 바야흐로 자질에 맞게 예를 갖춰야 한다.

授經意經 執卷入田 因惠就覽 수년의경 집권입전 인식취람 釋尊說法 經已誦讀 師方讚歎...

능히 이같이 하는 이는 이름 그대로 참다운 출가라 곧 가히 삼보를 이어 받들어 응성케 하고 사생을 제도해 해탈케 할 것인 즉 이로운은 더욱 더 깊어지고 공덕은 무량하리라.

“사리사육에 꼬달리지 말고

지 상 범 석



많은 신도들이 읽고 외는 금강경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법문을 듣고 그것을 마음에 새겨 부처님의 진리를 깨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법문만 듣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습니다. 여법히 금강경의 도리를 받아 실천해야 합니다. 이 금강경의 가르침 대로만 할 것 같으면 성불못한 사람이 업고 복 안지를 사람이 없으며 뜻대로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도리가 있다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맨처음 이 경의 이름을 지을 때 부처님께서 금강경이라 하셨는데 그 뜻이 무엇이냐고 물으니 이것은 곧 반야바라밀이 아니기에 이미 반야바라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째서 반야바라밀이 아니냐고 하니 이름과 모습에 꼬달리지 말라는 뜻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다만 문자에 따라 해석하자면 반야는 지혜를 바라밀은 지 언덕에 이른다든 뜻을 지닌다고 설명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걱정이 뭐예요. 먹고 입는 것 아녜요? 그럴 아무 걱정이 없으려면 어떻게 하야합니까. 그건 간단합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부처님 뜻을 따르면 극락세계에 가는 겁니다. 극락세계만 가면 아무 것도 걱정할 일이 없어요. 거기엔 추위도 더위도 아무 걱정할 것도 없고 사시사철 좋은 꽃이 피고 향긋한 바람이 부는 이상적인 세계예요.

“금강경 가르침대로 받들어 실천하면 탐진치 다 없어져 누구나 성불합니다”

그런 경지에 이르는 경이 금강경이란 말입니다. 마음을 닦아서 탐진치 삼독과 번뇌망상을 떼어 버리고 오직 모든 중생을 내 한몸과 같이 여겨라, 모든 중생을 부처님과 같이 받들어야 해요.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부처님의 마음을 지니지 않고서는 할 수 없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생사를 멸하고 모든 것을 자유자재할 수 있는 도리, 그 도리를 이 반야바라밀경만 지니고 있으면 행할 수 있고 큰 공덕이 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만 지니고 앉아 있으면 공부 가 됩니까, 그 뜻을 알고 전하는 것이 큰 공덕이 되는 것이지요. 어째서 큰 공덕이 되는가 하면 탐진치 삼독이 다 떨어져 중생이나 축생이나 본래의 근본 자리를 회복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이 49년동안 설법을 하셨지만 또한 내가 설한 바가 없다고 최후에 가서 말



지종스님 불갑사 조실

약 력 · 1922. 4. 21 생 · 1938년 법안스님 은사로 득도 · 백양사 주지 · 정광학원 이사장 역임 · 조계종 원로회의 의원(현재)

승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뜻은 무공무진 해서 한도 끝도 없는데 어떻게 말로 끝낼 수 있는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는 한량없는 무수한 중생이 있습니다. 삼악도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부처님 법문 듣고 그대로 다 따랐다면 삼악도가 다 없어지고 중생세계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이 바로 불국토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저 법문만 들으면 공덕이 된다는 생각만 갖고 실제로는 공부도 안하고,

공덕도, 복도 짓지 않고 아무 것도 안했어 요.

반대로 우리가 법문을 듣고 탐진치 삼독 고뇌를 다 털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부처님 같이 여기고 나와 한 몸뚱이 같이 여겨 보세요. 이런 사람에게 무슨 불행이 있겠습니까. 한량없는 행복만 계속될 뿐이지요. 결국 우리가 부처님 뜻을 하나도 제대로 이행한 적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중생은 그대로 남아 있고 삼악도도 삼악도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세계가 부처님 정법

은 멀어지고 오직 우리에게만 탐진치 삼독만 꼭 차 있는거죠. 그러나 언젠 이 세계가 극락정토가 되겠나야 믿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세상을 떠났을 때 모든 사람들이 슬피 울었어요. 육신은 태어났으니까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부처님은 마지막에 말씀하시길 내가 제정할 계법 다섯가지 살생하지 말라, 거짓말 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술먹지 말라 하시며 내 법을 항상 그대로의 스승으로 삼아라, 그 법을 스승으로 삼을지

Large advertisement section containing various notices, course listings, and recruitment information. Includes '현대불교' logo, '승도인쇄' (printing), '단청·불상·탱화·개금' (art services), '정통 중국어 속성강좌' (Chinese language courses), '경영관리직招聘' (management recruitment), '초등·중·고등' (education), '한글반' (Korean class), and '개인적 사정으로 학업의 기회를 놓치신 분을 위하여' (for those who missed education opportunities).